

# “전북 기후에너지환경 플랫폼 구축 필요”

### 전북연구원, 기존 환경관련 민간지원단체 통합 연계... 전북 기후·에너지·환경정책 체계적 지원 조직 설립 제안

전북 기후·에너지·환경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기후·에너지·환경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제 33호 이슈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따라 에너지 전환정책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 특화형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기도와 경남의 경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상남도환경재단’ 설립을 통해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환경관련 민간지원단체를 하나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기후·생물다양성 위기에 대한 환경 현안 대응력을 강화하고, 민간분야의 인식증진

과 참여, 교육훈련, 환경산업 육성 사업화 지원,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전북은 1980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전북생태관광공공성지원센터’,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환경교육과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과 시민사회 참여를 증진해 왔다.

하지만, 개별적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와 재정 안정성에 한계가 있어 지역주도 환경정책의 실천력 강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새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대한 대응,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생명경제로 시’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분야의 환경 분야 실천과제를 전담할 수 있는 통합 중간지원조직 출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연구원은 기관별 재정지원 형태와 소재지, 관리부서 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1단계(기반조성)는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조직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 연구 추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협의체 출범을 유도하는 것이다.

2단계(통합추진)는 전북탄소중립지

원센터에 환경영향평가 전담조직 기능 추가, 기후·에너지·환경분야 중간지원조직 통합의 재정지원 효과, 시설·공간 통합방안 논의 및 조례 개정을 진행하는 것.

3단계(중간지원조직 설립)로 통합 기후에너지환경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사무실 개청, 전북 특화정책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책임 맡은 김보국 수석연구위원은 “통합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은 전북지역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협력, 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 도 감사행정 ‘전국 최고’

### 2년 연속 자체감사 최우수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감사원이 실시한 2025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감사 역량을 인정받았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행정기관 307곳과 공공기관 413곳 등 총 7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북자치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감사체계 고도화와 감사품질 개선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 결과로 평가된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 강화 △재무·제도개선 성과 △적극행정 및 사전컨설팅 지원 체계 △감사지적사항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감사 운영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기관장의 자체감사기구 지원 관심도와 의지 평가 항목에서 전국 2위를 기록해, 도 차원에서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개인 부문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박정남 기술감사팀장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감사활동을 수행해 행정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다. /오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연말 프로그램·이벤트 다채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연말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별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연말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에게 다양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제공해 따뜻하고 즐거운 연말 분위기를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체험관에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전사가 설치되며, 연말 분위기를 살린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크리스마스 특별 이벤트가 함께 진행된다. 특히 가족 단위 체험객을 대상으로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요리·창작 중심의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체험관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머리띠를 증정하며, 실내외 공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해 방문객들이 연말 분위기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체험 프로그램 접수는 오는 10일부터 어린이창의체험관 누리집 상상문화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진행 중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족은 해당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창의체험관 누리집(jchildkr) 내 상상문화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만호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maeil.com에서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대장 임명식’이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가운데)가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도 의용소방대, 대장 임명식 개최... 2026년 임기 통일제 첫 시행

### 새롭게 지역 안전 책임질 362명의 의용소방대장단 공식 출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9일 도청에서 ‘전북자치도 의용소방대 대장 임명식’을 개최하고, 도내 14개 시군 15개 의용소방대연합회를 대표하는 362명의 의용소방대장을 공식 임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지사, 문승우 도의장, 박정규 위원장 및 이오숙 소방본부장을 비롯해 신임 의용소방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도 지사가 직접 임명장을 수여해 대장단의 위상과 책임감을 한층 높였다.

이번 임명식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조

례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 대장 등의 임기를 2026년 1월 1일로 통일하는 ‘임기 통일제’를 처음 시행하게 되면서 마련된 의미 있는 자리다.

이에 따라 기존 회장 등의 임기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괄 종료되고, 새로 임명된 회장단은 2026년 1월 1일부로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

이는 의용소방대의 업무 연속성 확보, 지역별 운영의 균형성 강화, 그리고 대장 등의 선출 및 업무 인수인계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 향상 등을 위

한 제도적 정비와 함께 조직 운영 체계가 새롭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지사는 “신임 의용소방대 대장단 여러분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린다”며 “새롭게 선출된 대장단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은태·윤정순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첫 시행되는 임기 통일제를 통해 의용소방대의 더욱 단합된 힘을 보여드리겠다”며 “이웃의 곁에서 언제나 든든하게 지켜주는 믿음직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시·군 기업애로해소 우수사례 5건 선정

### 수출·주차·인허가·정주여건 등 각종 현장애로 해결 성과 홍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시·군의 기업 애로 해결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기업애로해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서면 평가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실제 성과를 낸 사례를 중심으로 후보를 선정하고, 본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 등 총 5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대회는 기업전담제를 통해 축적된 다양한 현장 해결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시·군 전반으로 확산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

해 마련됐다.

시·군별 주요 우수사례로 진안군(최우수)은 설비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해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했다. 진주시(우수)는 베트남과의 경제 교류를 확대하며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 지역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뒷받침했다. 정읍시(우수)는 산업단지 내 유휴 공간을 남아 있던 완충녹지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해, 장기간 이어져 온 주차난을 해소했다.

무주군(장려)은 식품제조가공업체가 겪던 허가·등록 절차상의 애로를 신

속히 처리해 조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생산 활동의 조기 정상화를 이끌었다. 고창군(장려)은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SOC 확충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소멸 위기를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들 5개 사례는 시·군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 요인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이나 행정 지원을 통해 실제 문제 해결로 이어진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는 문제 해결 과정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사례 분석 결과 △정확한 문제 진단 △기관 간 신속한 협업 △정책과 지원의 연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공명으로 높은 성과를 이끈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오만호 기자

## 전북신보, 기업 호민관 정책 간담회 개최

### 14개 시·군 현장 의견 수렴... 지역 맞춤형 제도 개선 논의

전북신보보존재단이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전북신보보존재단은 지난 18일 2025

년 하반기 14개 시·군 기업 호민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기업 애로사항과 금융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전북

신보의 2025년 사업 성과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설명, 질의응답, 정책 개선 제안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신보는 앞으로 기업 호민관 제도 운영을 더욱 고도화하고, 상시적인 현장 의견 수렴과 피드백 체계를 통해 지역 금융지원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 “이번주 특별법 특례 실행 성과 점검”

### 전북자치도, 22~26일 도정 주요일정 발표 새만금 수상태양광·전력설비 협약 체결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 특별법 특례 실행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새만금 수상태양광과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광복 행보에 나선다.

관순태 전북특별자치도 보도지원팀장은 19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통해 22일부터 26일까지 추진되는 ‘도정 주요 추진 일정’을 발표하며, 다음 주에는 도정의 내실을 다지고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22일에는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성과보고회’가 개최된다. 이번 보고회는 특별법 전부개정법을 시행 1년 차를 맞아 2025년 한 해 동안의 특례 실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23일에는 세종사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특별자치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및 포럼에 참석한다. 전북을 포함한 4개 특별자치시·도는 이 자리에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등을 공동 요구하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협력을 다짐 예정이다.

새만금 에너지·벤처투자 등 경제 활력 제고 경제 분야에서의 성

과도 가시화된다. 23일 전북자치도는 새만금개발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및 전력설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북형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성과교류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유망 기업들의 투자 유치(R)와 우수 사례 발표가 진행되며, 특히 전북 도정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1조 원 벤처펀드 결성 세레모니’와 새로운 IR 브랜드인 ‘J.PLUM(제이플럼)’ 선포식이 진행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명예 홍보대사 위촉 및 관광·복지 인프라 확충 문화와 복지, 관광 분야의 행보도 이어진다. 24일에는 군산 출신의 김성환 전 야구감독을 전북특별자치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해 대외 홍보력을 강화한다. 또한, 전북형 마을문화 프로젝트 성과공유회를 통해 지역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만든 문화적 성과를 나눈다.

복지 분야에서는 23일 고창군 보훈회관 개관식이 열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며, 23일에는 김제 온천지구에 365억 원 규모의 ‘베스트 웨스턴 플러스 김제호텔’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이 체결된다.

2028년 개관 예정인 이 호텔은 101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연회장 등을 갖춘 김제 지역 관광 인프라 개선과 약 96명의 고용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오만호 기자

## 전북 전통주, 아시아 시장 첫걸음

### 홍콩서 전통주의 고급화 전략·아시아 시장 진출 기반 마련

### 한식 퓨전과의 만남 통한 전북 전통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부터 8일간 홍콩에서 도내 11개 업체가 생산한 17종의 전통주를 선보이며, 지역 전통주의 우수성과 현대적 감각을 알리는 행사를 열어 아시아 주류 시장 공략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홍콩 전통주 수입·판매 전문 업체인 KAVE와 함께 진행됐으며, 홍콩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시음회와 한식 퓨전 레스토랑 협업을 통해 전북 전통주의 매력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주요 행사로는, 홍콩의 한식 퓨전 타페스 레스토랑 ‘오름(OREUM)’과 연계한 시음회가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는 전북 전통주와 ‘오름’의 독창적인 한식 퓨전 요리를 페어링해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을 이끌었다. 행사에 참여한 현지 미식가들과 주류 전문가들은 전북 전통주의 깊은 풍미와 균형 잡힌 맛에 주목하며, 동남아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KAVE 전통주 갤러리에서 진행된 전



시·시음 행사와 함께, 샹그릴라호텔 홍콩 궁궐 기념 특별 부스에서는 전북 전통주의 정통성과 현대성을 함께 소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북 각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주를 중심으로, 발효 기술과 지역적 특색이 결합된 제품을 집중 홍보하며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참여한 11개 업체는 전북을 대표하는 생산자로, ‘한영석의발효연구소’, ‘지란지교’, ‘비틀도가’, ‘후회야조’, ‘에플링영농조합법인’ 등 다양한 개성과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포함됐다. 전북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고용 창출, 제조업체의 매출 증대와 같은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오만호 기자

## 도, 벼 깨씨무늬병 피해농가에 153억원 복구비 지원

### 14개 시군 1만1799농가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가 올여름 이상기온으로 확산된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 1만1,799곳에 대해 총 153억원 규모의 복구비를 지원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복구비 지원은 2025년 7~9월 벼 생육기 동안 고온과 잦은 강우 등 이상기상 여건이 겹치면서 벼 깨씨무늬병이 대규모로 확산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확이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을 농업재해보상 인정함에 따라 이뤄졌다. 지원 대상 면적은 도내 14개 시·

군, 1만1,032.3ha이다.

도는 피해 발생 시기와 확산 양상, 피해 면적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피해를 농업재해로 최종 결정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농약제와 대파대를 구분 지원했다.

이번 재해 인정은 수확기 농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농가의 어려움을 살핀 현장 중심 행정을 바탕으로, 농민 축산식품부에 재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다.

현장 중심 행정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오만호 기자